

통신 언어의 표준 화법

이정복

대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1. 머리말

인터넷 통신의 급속한 보급과 일상적 이용으로 우리의 언어 생활은 그 영역이 넓어졌고, 우리말이 쓰이는 모습도 아주 다양해졌다. 인터넷 등의 전자 통신에서 사람들 사이의 의사 소통을 위해 사용하는 모든 종류의 글자 언어를 인터넷 통신 언어라고 부르는데(이정복 2003 : 21), 그것은 우리말 사용 영역이 확대된 결과이다. 이러한 통신 언어는 일상어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형태 면에서 어문 규범에 크게 어긋난 변이형이 많을뿐더러 의미·화용 면에서도 새로움이 많다.

통신 언어는 컴퓨터 글쇠판을 이용하여 입력되고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것은 여러 가지 특성을 보여 준다. 예를 들어 통신 언어는 기본적으로 글자로 표현되는 점에서는 글말이지만 대화방, 게시판, 전자편지의 사용 영역과 관계없이 실제로는 입말의 특징을 뚜렷하게 보여 준다. 통신 언어는 글말이면서 입말이라 할 수 있는 셈이다. 통신 언어는 인터넷 통신망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빠르게 전달되며, 화자와 청자 사이에서 빠른 속도로 상호 소통이 이루어진다. 이

때문에 통신 화자들은 글자 입력을 서두르고 노력을 최소한으로 줄이려는 일이 많다. 통신 언어는 대화글이든 게시글이든 많은 사람들이 읽게 되는 점에서 개방성과 대중성을 지닌다.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해 비속어 표현이나 규범에 어긋난 형식을 일부러 쓴다든지 게시글의 제목을 실제 내용과 달리 과장되게 붙이기도 한다.

이러한 통신 언어를 쓸 때 의사소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참여자들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 예절을 지키고 바르게 말할 필요가 있다. 통신 공간에서 지켜야 할 예절을 ‘통신 예절’ 또는 ‘네티켓’(netiquette)¹⁾이라 부르는데 이것을 좀 더 언어의 면에 초점을 맞추어 생각하면 ‘통신 화법’(通信 話法)이 된다. 곧 통신 화법이란 인터넷 통신 공간에서 화자들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효과적으로 말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라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통신 언어가 일상어에 바탕을 두면서 통신 공간의 특성을 반영하는 특수성이 있는 것처럼 통신 화법도 일상어의 화법에 바탕을 두면서 통신 공간 나름의 특수성이 반영된다고 하겠다. 우리 생활에서 차지하는 인터넷 통신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통신 공간에서 바르고 효과적으로 말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일은 아주 중요하며 의미가 크다. 이 글을 통하여 우리말의 바른 통신 화법을 정리함으로써 국어 화자들의 통신 언어 사용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대화방에서의 화법

인터넷 통신 대화를 해 나갈 때에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예절을 잘 지켜야 한다. 상대방이 화자 자신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반말을 쓰는 것은 좋지 않다. 지위 차이가 있고 잘 아는 사람이라도 오히려 해요체나 하십시오체를 서로서로 씌우므로써 밝

1) 인터넷을 가리키는 ‘네트워크’(network)와 예절을 뜻하는 ‘에티켓’(etiquette)을 합쳐 만들어낸 말이다. 통신 공간의 문제를 줄이기 위한 이용자들의 자율적 규약이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네티켓이 존재할 수 있다.

은 대화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으며, 자유롭고 민주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할 것이다.

대화방에 들어갈 때에는 다른 사람에게 인사를 하고 자신을 소개한다. 처음 만났거나 잘 모르는 사이일 때 또는 잘 알더라도 말을 놓지 않기로 한 때에는 첫인사로 “안녕하세요?”나 “반갑습니다”를 쓰는 것이 좋다. 이에 대해 먼저 대화방에 있던 사람은 “어서 오세요” 또는 “반갑습니다”를 쓴다. 자기를 소개할 때에는 이름, 나이, 성별, 직업, 사는 지역, 취미 등을 간단히 밝히되 거짓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저는 대구에 사는 대학 2학년생입니다. 문화 유적 답사에 관심이 많습니다”와 같이 말하면 되겠다. 대화 중에 먼저 나갈 때에는 “즐겁게 대화 나누세요”나 “다음에 또 봐요”와 같이 인사하고, 남아 있는 사람은 “안녕히 가세요”, “다음에 또 봐요”로 응답하는 것이 좋다. 실제 대화방에서 보이는 인사말의 예를 들어 본다.

(1) 대화방에서의 인사말

가. 대화방에 들어갈 때

뽀투	▶	재워주나여?
choi	▶	안된다고했잖어
choi	▶	잠은너거집에서자야제
용준	▶	ㅎㅎㅎ

☆ chinabeijing(cabeijing) 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뽀투	▶	그래두이뽀짓하면
☆ 뽀투(dhdpdl)	게서	세이클립을 떠나셨습니다.
choi	▶	야~하긴
chinabeijing	▶	안녕들하세요..
chinabeijing	▶	설 잘 보내셨나요?
choi	▶	안녕하세요
용준	▶	나갔네
choi	▶	소개안하남요

나. 대화방에서 나올 때

코스모스	▶	주면돼지 바부야
붕우리	▶	친구가줘
코스모스	▶	내가?
붕우리	▶	그래
코스모스	▶	첫눈아 먼데
코스모스	▶	내가줄게
붕우리	▶	첫눈 머하니
코스모스	▶	친구야 나 갈게
코스모스	▶	다음에 보자
코스모스	▶	안녕
붕우리	▶	그래 꼭만나
코스모스	▶	첫눈아 도 다음에보자
코스모스	▶	안녕

☆ 코스모스(asdf9288) 님께서 나가셨습니다.

(1가)에서는 해요체를 사용하여 서로 인사를 하였으나 (1나)에서는 해체를 사용하였다. 잘 아는 사이면서 말을 편하게 하기로 한 때에는 “안녕?”, “반가워/반갑다”, “어서 와”를 첫인사로, “안녕”, “즐겁게 대화 나눠라”, “다음에 또 봐/보자”, “그래 잘 가”를 끝인사로 쓸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통신 화자들은 인사말로 ‘하이/할룽/리하이’와 같은 외국말이나 그것에 바탕을 둔 변이형을 쓰는 일이 많고, ‘안뇽’, ‘어쵸여’, ‘망가방가’처럼 규범에 어긋난 말을 쓰기도 한다. 경제적 기능이나 표현적 기능, 오락적 기능이 있다고 하지만 바른 표현이 아니며 다른 통신 화자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는 점에서 사용하지 말아야겠다.

대화방에서 다른 사람을 부르거나 가리킬 때에는 상대방을 나타내는 실제 이름이나 통신 이름, 대화명(對話名) 등에 두루 높임 호칭어 ‘님’을 붙인

다.²⁾ 복수의 상대방을 위해서는 ‘님들/여러분’을 쓸 수 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쓰고 있는데, 실제 대화방 사례를 들면 아래와 같다.

(2) 대화방에서의 부름말과 가리킴말

술에취해서	▶ 푸우님 언 학교가여??
푸우	▶ 별점 1점
나만조아친구	▶ 헐
푸우	▶ ^^
나만조아친구	▶ 토크박스네여
술에취해서	▶ 헛..
푸우	▶ ㅎㅎㅎ
공도리	▶ 푸웅
술에취해서	▶ 그렇게 되나..--
나만조아친구	▶ 님은 서세원아찌?
푸우	▶ 저는 저~ 멀리 에 있는 학교
푸우	▶ ^^;;

(2)에서 “푸우님”은 대화명에 ‘님’을 붙인 가리킴말이며, “님은 서세원아찌?”에서의 ‘님’은 대화 상대방을 가리키는 대명사로서의 용법이다. 일상어에서는 ‘님’이 접미사와 의존명사로 쓰이고 있음에 비해 통신 언어에서는 대명사로까지 용법이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이정복 2000). 서로 잘 아는 사이에서 반말로 편하게 대화를 나눌 때에는 이름이나 대화명을 호칭 형식으로 쓸 수 있고, 부름말에서는 조사 ‘아/야’를 붙일 수 있겠다. 복수 인물에 대해서는 ‘다들’이나 ‘모두들’을 쓰면 된다.

한편, 위의 대화문을 보면 물음표를 두 개 겹쳐 적은 것과 그림 글자 표

2) ‘통신 이름’은 통신망이나 특정 사이트에 가입할 때 등록하는 공식적이고 지속적인 성격의 이용자 이름임에 비하여 ‘대화명’은 대화방이나 게시판에서 상황에 따라 쉽게 바꿀 수 있는 일회성의 것이다.

현이 보인다.³⁾ 다른 통신 언어 사용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일 것인데, 이러한 문장 부호의 반복이나 그림 글자 사용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좋겠다. 필요 없이 습관적으로 그러한 표현을 쓰는 일이 많을뿐더러 인터넷 통신을 이용하는 다양한 화자들 사이에서 이질감(異質感)과 세대간의 단절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3. 게시판에서의 화법

게시글을 쓸 때에는 기본적으로 해요체나 하십시오체를 쓰는 것이 좋다. 이러한 높임 형식을 쓰면 글을 읽는 상대방에게 마주 보고 말하는 것과 같은 심리적 친밀감을 줄 수 있다. 통신 언어가 글자로 표현되지만 영역에 관계없이 입말의 특성을 보이며, 잘 알지 못하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청자가 될 수 있는 점에서 높임의 청자 경어법 형식을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객관적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 기사나 설명문 형식으로 쓰거나 강한 자기 고백적인 글, 특정 하위자를 청자로 설정한 글에서는 해라체나 해체를 쓸 수 있다.⁴⁾

(3) 해요체와 하십시오체를 사용한 게시글

가. 제목 : 호칭

어린 아이들이 삼촌을 부를때 큰아버지 작은아버지라고 보통 부릅니다

작은 아버지란 호칭말고 가장 올바른 다른 호칭은 무엇인지요 ?

혹시 2째 큰아버지란 말은 어뜬지요

☞ 가져온 곳 : 네띠앙(netian) 게시판 <우리말, 이것이 궁금해요>

3) ‘그림 글자’란 글자나 기호, 숫자를 동원하여 마치 초기의 상형 글자처럼 그림을 그려 시각적인 감각에 호소함으로써 느낌이나 상태를 생동감 있게 나타낸 것을 말한다(이정복 2003 : 36). ‘이모티콘’, ‘스마일리’, ‘상감문자’, ‘표정문자’라 불리기도 한다.

4) 이러한 글에서 해라체를 쓴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대한 예의가 없다고 비난하는 게시글을 가끔 찾아 볼 수 있다. 그만큼 통신 화자들은 대화방은 물론이고 게시판에서도 ‘일방적·독백적 글쓰기’가 아니라 ‘양방적 대화’를 기대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나. 제목 : 요즘 ‘낫다’를 ‘낱다’라고 쓰는 분이 많더군요

행자(해* 자라고 함) 들의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이런 말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게 저것보다 낱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낱아요”

애를 낳는 것인지 뱃를 낳는 것인지 아직 알 수 없으나, 대부분은 그 hehja라는 폐인들의 영향을 심하게 받고 있더군요. 이 hehja virus는 최근 국가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웜 변형 바이러스보다 감염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

☞ 가져온 곳 : 한말연구학회 <자유 게시판>

위의 게시글 (3가)는 묻고 답하기 게시판에서 가져온 것인데 우리말 쓰임새에 대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내용이다. 직접적인 통신 청자로 전문가를 세운 상태에서 질문을 하였기 때문에 해요체와 하십시오체의 쓰임이 더 요구된다. 이와 달리 (3나)는 직접적인 청자가 없는 글로서 해라체의 사용이 가능하지만 글쓴이는 해요체와 하십시오체를 섞어 쓰고 있다. 게시글에서의 해라체 사용이 읽는 이에 대한 무례는 분명 아니지만 해요체 등의 높임 형식이 통신 화자들 사이의 긴밀한 심리적 관계 형성에 더 유리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른 사람을 부르거나 가리킬 때에는 대화방에서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을 나타내는 이름이나 통신 이름, 대화명 등에 두루 높임 호칭어 ‘님’을 붙인다. 복수 인물을 위해서는 여기서도 ‘님들/여러분’을 쓸 수 있겠다. 이러한 두루 높임의 ‘님’과 ‘여러분’을 쓸 때에는 높임의 정도를 조절하기 위한 전략적 용법이 아닌 한 청자 경어법에서 해요체나 하십시오체를 함께 쓰는 것이 더 잘 어울린다.⁵⁾

(4) 게시판에서의 부름말과 가리킴말

가. 제목 : 영등포방 조기구입하실분~(조기번개하죠!)

조기구입하고 싶으신분 꼬리 달아주세요.

씨애평님께서 시작하셨는데... 아직 15두루미 안되네요.

15두루미 되어야 택배가능하거든요.

조기 주문하면 다음날 도착한다니... 날짜 맞추어서 조기도 가지러 오면서 번개도 하면 좋을듯하네요.

장소는 아직 안 정했구여.

장소 빌려주실**님** 계시면 꼬리 달아주시구여 ^ * ^

[...]

☞ 가져온 곳 : 천 사랑(러브 패브릭) <게시판/동호회>

나. 제목 : Re:심사평을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질의하신 내용을 **교수님**의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감사합니다.

☞ 가져온 곳 : 한국학술진흥재단 <게시판/Q&A코너>

다. ‘고객의 소리’는 **고객님**께서 인터넷 영풍문고를 이용하시다가 불편한 점, 궁금한 점, 또는 개선할 점 등을 1:1 상담으로 해결해드리는 곳입니다.

각 부분에 관한 문의는 아래 메일로 보내주시면 담당자가 해결해 드립니다.

좀 더 나은 쇼핑을 위해서 **고객님**들의 의견을 위해 귀를 기울

5) 우리말 경어법 사용은 규범적 용법과 전략적 용법으로 나뉜다. 이에 대해서는 이정복(2001)을 참조할 수 있다.

이고 있습니다.

☞ 가져온 곳: 영풍문고 <고객센터>

(4가)는 대화명에 ‘님’을 붙인 가리킴말이 사용되었으며(씨엠송님), “장소 빌려주실님”에서 ‘님’은 대명사로 사용되었다. 통신 공간의 게시글에서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용법들이다. (4나, 다)는 사이트의 성격에 따라 다른 형식의 호칭을 쓰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음을 보여 준다. 교수들이 주로 방문하는 사이트에서는 ‘교수님’을, 물건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상업 사이트에서는 ‘고객님’을 사용하였다. 개인이 만든 소규모 의존형 사이트에서는 방문자들이 많지 않고 서로 잘 아는 사이인 경우가 많은데, 이런 때에는 ‘님’을 붙이지 않고 이름 등을 그대로 호칭으로 쓰거나 ‘오빠/형’, ‘언니/누나’와 같은 일상 공간에서의 호칭 형식을 쓰기도 한다.

게시글에서 특징인을 통신 청자로 설정하여 글을 쓸 때에는 제목에서 “김영희 님에게/께”나 “홍길동 님 읽어보세요”, “이철수 님에게/께 질문이 있습니다”와 같은 말을 붙임으로써 읽을 사람의 범위를 밝히는 것이 예의이다. 그렇게 하였다고 다른 사람이 읽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모르고 읽었을 때의 허탈함은 미리 막을 수 있다.

(5) 특정 통신 청자를 밝힌 게시글 제목

가. 제목 : **윤영희** 아나운서님...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윤영희 아나운서님께서 진행하시는 오전 뉴스 잘 보고있습니다.

오래전부터 팬의 한사람으로써.. 질문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프로필에 대하여 많은것을 알아봤는데 생년월일이 그 어디도 안나와 있더군요..

알려주시면 안될까요??

☞ 가져온 곳 : 한국방송의 <커뮤니티/KBS-family/KBS 아나운서와 함께 / 나도 한마디>

나. 제목 : **채송화님, 요소님** 답변 감사합니다

채송화님, 요소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고용보험회사에 대하여 따져보고 원인을 밝혀야 겠습니다.

감사드리며 그럼 늦은인사이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가져온 곳 : 하이브레인넷(hibrain)의 <브레인카페>

제목은 글의 내용을 쉽게 짐작할 수 있도록 내용을 요약하여 붙이는 것이 가장 좋다. 글의 내용이 어떤 종류인지를 알려 주는 ‘질문’, ‘제안’, ‘의견’과 같은 ‘말머리’를 제목에 덧붙이는 것도 효과적이다. 본문을 읽지 않아도 어떤 내용의 글인지를 알 수 있으므로 빠른 의사소통과 효율적인 게시판 이용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글을 읽도록 하기 위해 자극적인 표현을 쓰거나 실제 내용과 관련이 없는 제목을 붙여서는 안 되겠다. 게시글의 제목을 바르게 붙인 것과 그렇지 못한 보기를 들면 아래 (6), (7)과 같다. 모두 대구대학교의 <게시판/공용게시판/자유게시판>에서 가져온 것이다.

(6) 바르게 붙인 게시글 제목

제목 : **중앙도서관에서 근로학생을 모집합니다.**

우리대학교 중앙도서관 과학기술 예술 자료실에서 근무할 근로장학생을 모집합니다.

1. 채용인원 : 2명(성별무관)

2. 근무시간

* 평일 : 09:00-16:00

<근로장학금 매월 30만원>

3. 모집기간 : 2003년 2월 28일까지

[...]

(7) 바르지 못한 게시글 제목

가. 제목 : **와!!! 해보고 싶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지편집국에서 기자로 있는 ○○학과 학생입니다.

혹 예비 03학번 여러 분들 중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학교 교지에 신고자 하는 분은

제 이멜로 글을 써 주십시오.

아무 글이나 다 됩니다. [...]

나. 제목: **돈 그냥 벌어서 일주일이면돈이50만원정도**

...그냥 한번 손해 날것 없으니 해보세요!!

심심할땐 이런것두.....^^

나이 23에 헛소리는 아닙니다. 돈주는 이유: 이사이트는 다른 배너광고들을 모집 선전하는데 많은 사람이 보게끔 광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업체로 부터 돈을 받고

일부를 우리에게 주는 거죠 손해 날것은 없으니 해보세요

[...]

(6)은 학교에서 일할 사람을 찾는 글로서 본문 내용을 잘 나타내는 제목이 붙었다. 이와 달리 (7)은 내용과 관련성이 낮은 자극적 표현을 제목으로 붙여 문제가 있다. (7가)의 경우 ‘해보고 싶다’라는 중의적인 선정적 표현을 제목으로 내세웠고, (7나)는 실상과 거리가 있는 허위 내용을 적어 통신 청자들의 관심을 끌려고 하였다.

게시글의 본문을 쓸 때에는 첫머리에서 통신 화자 자신이 누구인지를 간단히 밝히고, 끝머리에서는 자신의 글을 읽어 준 데 대하여 고마움을 표현하면 친절한 글이 될 수 있다. 본문은 우리말 어문 규범에 맞추어 작성하고, 지나치게 길게 적지 않는다. 또한 제목만 있고 내용이 없는 빈 글은 가능한 쓰지 않도록 한다. 제목 한 줄로도 표현할 수 있는 간단한 내용을 꼭

적고자 한다면 “(본문) 내용 없음” 또는 “본문은 없습니다”를 함께 적어 줌으로써 빈 글을 누르는 시간 낭비가 없도록 해야 하겠다.

(8) 본문 내용이 없음을 나타낸 게시글 제목

가. 재미있는 글 감사합니다 (내용 없음).

가'. 답변 감사합니다.(내용 무)

... ^^

나. RE 속이 후련해집니다. (내용 없음)

세 가지 모두 다른 게시글에 대한 ‘답글’로서 한 문장으로 고마움을 나타내거나 자신의 기분을 간단히 드러내었다. “본문 내용 없음”을 줄여서 “내용 없음”이나 “내용 무”로 적었다. 통신 화자들은 이들을 더 줄여 ‘냉 무, ㄴㅇ, 냉텅’을 쓰기도 하는데 다양한 계층의 통신 화자들이 있음을 생각할 때 지나치게 줄인 은어 표현은 효과적인 의사소통에 방해가 된다고 하겠다.

4. 전자편지에서의 화법

전자편지에서는 제목, 보내는 사람 이름, 받는 사람 이름, 날짜를 적는 첫머리 부분이 본문 위에 나타난다. 날짜는 자동적으로 적히지만 다른 것은 보내는 사람이 직접 입력해야 된다. 각 항목을 빠짐없이 적는 것이 편지 받는 사람을 배려하는 태도이다.

전자편지의 제목은 내용을 잘 요약하여 붙이는 것이 좋다. 게시글에서와 마찬가지로 ‘부탁’, ‘안부’, ‘긴급’과 같이 ‘말머리’를 제목에 덧붙인다. 제목을 내용 중심으로 붙일 때에는 일반 편지의 첫머리에서 “홍(길동) 선생님께”, “(이)철수에게”라고 하듯이 본문 첫 줄에서 받는 사람을 부르면서 시작하는 것이 좋다. 이것이 번잡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제목 칸에 내용 대신 받는 사람을 적을 수 있으며(9나), 친숙하지 않은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거나

평소에 연락을 하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보낼 때에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히는 제목을 붙일 수도 있다(9다).

(9) 바르게 붙인 전자편지의 제목

가. 보낸사람 : 정유경(jyg**@hanmail.net)

날짜 : 2002/12/24 01:42

받는사람 : leejb@daegu.ac.kr

제목: 성적에 대한 이의 및 문의

교수님, 안녕하세요?

통사론 수업을 들은 정유경 입니다.

오늘 공시된 성적을 확인 했는데 예상보다 못 나와서 교수님께 성적에 대해 여쭙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중간 고사를 많이 못치긴 했지만 기말은 어느 정도는 쳤다고 생각해서 (한..) 'A-' 는 나올지 알았거든요.

[...]

나. 보낸사람 : 관호^(wary**@hanmail.net)

날짜 : 2002/09/12 19:30

받는사람 : 이정복 교수

제목 : 이정복 교수님께

이번에 교수님의 국어학개설을 듣는 동양어문학부 국어국문소속 02학번 이관호입니다. 제일 첫 날에 수업 있기 몇 시간전에 수강변경으로 인해 수업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적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다. 보낸사람 : 문주영 (mjy**@icec.or.kr)

날짜 : 2002/08/28 17:11

받는사람 : 이정복

제목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홍보부 문주영입니다.

우선 바쁘실텐데 원고를 써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원고청탁서 첨부하니 참고하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자편지를 쓸 때에는 첫머리의 보내는 사람 이름을 반드시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사람에게 따라서는 별명이나 좋아하는 문구를 적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정확하고 빠른 정보의 흐름에 방해가 된다. 또 상업용 전자편지가 넘쳐 나는 현실에서 보내는 사람이 분명하지 않은 편지는 읽히지도 못하고 곧 바로 쓰레기통에 버려지기 쉽다.

(10) 바르지 못한 전자편지의 보내는 사람 이름

가. 돌시내야, 슬픈이름, 신나는오리, 나능똑똑이닭, 내아뒤내과,
Oo위풍당당oO (사적 편지에서 가져옴)

나. 수호천사, 홍보맨, 고객지원팀, 답변재발송, 부자되세요! (상업적 편지에서 가져옴)

편지 본문은 다른 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말 어문 규범에 맞추어 쓰고, 지나치게 길게 적지 않는다. 본문이 끝난 다음에는 상대방과의 관계나 상황에 맞게 인사말을 적고, “이철수 올림”, “(홍)길동 드림”, “(김)영희 씀”과 같이 편지를 쓴 자신을 다시 한번 밝히는 것이 공손하거나 친절하게 받아들여진다. 공적 편지에서는 날짜와 보내는 사람을 본문 뒤에 다시 밝히는 것이 필수적이라 생각되지만 사적 편지에서는 ‘경제성’과 ‘즉시성’(即時性)이라는 통신 언어 사용의 특성상 첫머리와 중복되는 이러한 내용은 줄일 수도 있겠다. 요즘은 전자편지를 작성할 때 보내는 사람의 전화 번호, 주소 등 개인 정보를 명함 형식으로 저장해 두었다가 편지 끝에 자동으로

달려지도록 한 서명 기능을 활용하는 일이 많다.

5. 운영자의 화법

인터넷 통신 운영자의 언어 사용은 통신 화자들의 언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이 앞선 연구들에서 지적되었다. 운영자 언어는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면서 상당한 권위를 지니기 때문에 화자들이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따라 쓰게 되고 내면화시킨다. 이 점에서 바른 통신 화법의 정착을 위하여 운영자의 책임 있는 언어 사용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통신 운영자의 화법에 대하여 몇 가지 제시하기로 한다.

먼저, 통신 운영자는 어문 규범에 맞추어 언어를 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특히 경어법 면에서 하십시오체나 해요체의 높임 형식을 사용하여 이용자들을 정중하게 대우함으로써 통신 공간에서의 품위 있는 언어 생활을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11) 운영자의 모범적인 알림글

가. 겨울바다(kim**)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나. 범벅호박(fruit**)님께서 lhm**님에게 방장권한을 주었습니다.

다. 빠친머리(river**)님께서 세이클럽을 떠나셨습니다.

위 사례는 대화 전문 사이트 운영자가 대화 참여자들에게 보내는 상황 알림글이다. ‘님’, ‘께서’, ‘-시-’의 높임 경어법 형식과 하십시오체 청자 경어법을 사용함으로써 통신 화자들의 언어 사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통신 운영자는 이용자들의 잘못된 언어 사용을 지적하고 바르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 줄 필요가 있다. 특히 비속어나 ‘외계어’ 등 우리말 규범에 크게 어긋나는 말을 쓰는 이용자에게 경고를 보내고, 그 정도가 심한 때에

는 게시글 지우기, 대화방 이용 막기, 회원 가입 취소 등의 직접적인 대응 조치가 있어야 하겠다.

(12) 이용자들의 바른 언어 사용을 권장하는 운영자 언어

가. 세이클럽(sayclub)의 <바른 언어능력 테스트> 알림글

안녕하세요. 세이클럽입니다.

함께하면 즐거운 사람들 :-) 세이클럽이 온라인상의 바르고
고운말 지킴이로 나섰습니다.

[...]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바르고 고운말 쓰기 운동에, 세이
클럽 회원님들께서 가장 먼저 앞장 서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아이두(idoo)의 <언어파괴 이제는 그만!> 알림글

- 언어파괴 게시물에 대해 반성을 촉구하는 답장을 달아줍시다.
- 우리 스스로 자신들의 달라진 어투를 발견하며 반성합시다.
- 언어파괴는 자멸을 뜻합니다. 또래간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위해 올바른 언어를 사용합시다.
- 온라인에서 존재하는 한글은 우리의 큰 재산입니다. 올바른 한글을 지켜나가도록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다. 아라 쏘잉(ara sewing)의 <자유 게시판> 알림글

지나친 네티용어는 자제해 주세요.

정확하게 한글 표준법에 맞춰서 글을 쓰는것은 힘들거예요.

이곳에 오시는 분들 만큼은 이해하기 힘든 네티용어(통신어, 외계인어) 대신,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고운말, 바른말을
사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나치게 알 수 없는 네티용어의 글을 답글을 달지 않습니다.

위 (12)의 사례는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가 바른 통신 언어 정착을 위해 이용자들에게 알리는 글이다. 이러한 운영자의 노력이 통신 언어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이용자들이 바른 언어 사용 태도를 갖추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6. 맺음말

지금까지 우리말의 통신 화법을 통신 언어 사용 영역별로 살펴보았다. 모든 영역에서 쓸 수 있는 공통의 통신 화법과 특정 영역에 한정된 통신 화법으로 나누어 표로 정리하기로 하겠다. 각 내용에는 구체적인 언어 형식과 언어 사용 태도가 모두 포함된다.

<표 1> 통신 화법 1 : 두루 씀

구 분	처음 만났거나 잘 모르는 사이일 때	잘 아는 사이로서 반말을 쓰기로 하였을 때
부름말/ 가리킴말	김영희 님, 철수 님, 봄꽃 님, wjjbok 님; 여러분, 님들	김영희, 영희(아), 봄꽃(아), wjjbok; 다들, 모두들
청자 경어법	해요체, 하십시오체	해체, 해라체
언어 사용 태도	· 우리말 어문 규범을 따르고, 간결하게 말하거나 적는다. · 그림 글자 사용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문장 부호 등을 습관적으로 반복하여 적지 않는다.	

<표 2> 통신 화법 2 : 영역별로 씀

구분	언어 형식과 언어 사용 태도
대화방 언어	· 첫인사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 자기 소개하기 : 저는 대구에 사는 대학 2학년생입니다. 문화 유적 답사에 관심이 많습니다. · 끝인사 : 즐겁게 대화 나누세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히 가세요 (해체나 해라체를 사용할 때에는 각각의 대응 형식을 씀)
게시판 언어	· 제목을 바르고 효과적으로 붙인다. · 읽을 사람을 한정하기 : 김영희 님에게/께, 홍길동 님 읽어보세요, 이철수 님에게/께 질문이 있습니다 · 특정한 사이트에서의 호칭 : 김(영희) 선생님/교수님/고객님/회원님, (철수) 오빠/형, (영희) 언니/누나 · 본문 내용이 없음을 밝히기 : (본문) 내용 없음, 내용 무, 본문은 없습니다
전자편지 언어	· 제목을 바르고 효과적으로 붙인다. · 첫머리의 보내는 사람 이름을 정확하게 밝힌다. · 본문에서 받는 사람 밝히기 : 홍(길동) 선생님께, (이)철수에게 · 본문에서 보낸 사람 밝히기 : 이철수 올림, (홍)길동 드림, (김)영희 씀
운영자 언어	· 해요체나 하십시오체를 사용하여 이용자들을 정중하게 대우한다. · 이용자들의 바른 언어 사용을 위해 애쓴다. 우리말 규범에 크게 어긋나는 말을 쓰는 이용자에게 경고를 보내고, 그 정도가 심한 때에는 게시글 지우기, 대화방 이용 막기, 회원 가입 취소 등의 직접적인 대응 조치를 내린다.

여기서 제시한 내용들은 통신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실천하면 좋을 바른 화법을 글쓴이 나름대로 생각해 본 것이다. 많은 수의 젊은 통신 화자들이 규범에 어긋나는 언어 사용을 개성의 표현으로 여기며 그러한 것에서 재미를 찾고 있는 현실에서 바른 통신 화법의 정착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다만 계속적인 논의를 통하여 우리말의 표준 통신 화법을 만들어서 통신 화자들이 널리 쓸 수 있도록 해 나간다면 인터넷 통신 공간에서 세대간의 단절을 극복하고 화자들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국립국어연구원(1995), 『남북한 친족 호칭·지칭어 비교 분석』, 국립국어연구원.
- 박갑수(1989), 「국어 호칭의 실상과 대책」, 『국어생활』 19, 10-32, 국어연구소.
- 이익섭(1994), 『사회언어학』, 민음사.
- 이정복(2000), 「통신 언어로서의 호칭어 ‘님’에 대한 분석」, 『사회언어학』 8-2, 193-221, 한국사회언어학회.
- 이정복(2001), 『국어 경어법 사용의 전략적 특성』, 태학사.
- 이정복(2002), 「전자편지 텍스트의 구조와 기능」, 『텍스트언어학』 12, 93-118, 한국텍스트언어학회.
- 이정복(2003), 『인터넷 통신 언어의 이해』, 월인.
- 이정복·김봉국·이은경·하귀녀(2000), 「바람직한 통신언어 확립을 위한 기초 연구」, 연구 보고서, 문화관광부.
- 조선일보사·국립국어연구원 엮음(1991), 『우리말의 예절-화법의 실제와 표준』, 조선일보사 출판국.
- 추병완 외 5인(2001), 『사이버 윤리 어떻게 가르칠까?-중·고등학교 교사용 정보통신윤리교육 프로그램』, 서울특별시 교육청.
- 홍윤선(2000), 『클릭 네티켓』, 중앙M&B.